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

김용관 지음

괴짜 수학자의 인문학서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는 괴짜 수학자의 인문학서가 나왔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성미산학교 등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김용관 씨가 펴낸 '돈키호테는 수학 때문에 미쳤다'는 수학으로 돈키호테의 행동을 새롭게 분석한 책이다.

17세기 인물인 돈키호테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기사도 소설에 빠지면서 미쳐 버린 후천적 광인이었다. 저자는 돈키호테의 몰락이 근대 문명이 대두되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즉 근대문명의 토대인 수학과 돈키호테의 광기는 어떤 식으로든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광기와 수학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저자는 인문학 속에 담긴 수학적 해석을 통해 지적 흥미를 유도할 뿐 아니라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재미를 갖도록 한다. (생각의 길·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어느 독일인 이야기

제바스티안 하프너 지음

침묵을 먹고 자란 나치즘

'어느 독일인 이야기'는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아버지꼴로 만들었는지, 그런 히틀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독일의 가장 성공한 역사 교양서 작가로 평가받는 제바스티안 하프너(1907~1999)의 유작인 이 책은 독일 사람들의 침묵과 열광 속에서 히틀러와 나치즘이 대두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이 책은 1차 대전이 발발해 나치가 정권을 장악하기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동세대의 내면 풍경에 주목한다. 개인 경험을 간간으로 이를 사회현상과 병치하면서 한 시대를 읽어낸다.

책의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하프너는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편이 아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저자는 '난폭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와 '작고 이름 없는 개인'의 '결투'를 설명한 필치로 그려낸다. <돌베개·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예술작품서 느끼는 감동의 원천, 뇌일까 마음일까

통찰의 시대

에릭 캔델 지음



슬픈 영화를 보면 왜 눈물이 날까? 그흐의 그림을 보면 왜 몽클레질까?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마음일까, 아니면 뇌의 반응일까?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뇌과학자 에릭 캔델(85)이 무의식 세계를 탐구한 '통찰의 시대'를 펴냈다.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과학과 예술, 인문학을 아우른다.

책은 언급한 대로 '인간은 왜 예술작품에 흥미를 느끼는가'에서 출발한다. 모든 장르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감동을 추구한다. 중력의 법칙처럼 입증되는 과학의 세계와 달리 예술에는 명확한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술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 같은 의문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저자는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인간의 무의식에 작동하는지를 파헤치기 위해 세 화가의 그림을 대상으로 삼는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오스카어 코코슈카의 초상화가 그것으로, 이들 작품 화가들은 과학과 예술이 교류를 시작한 1900년대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당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은 파리와 더불어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다)

공교롭게도 저자의 고향도 오스트리아 빈이다. 1929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대학교수로 성공하지만 그의 관심은 늘 고향 '빈'에 닿아 있었다.

저자가 세 명의 화가 즉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오스카어 코코슈카의 작품을 대상으로 뇌과학을 결부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시각과 감정에 따른 뇌의 반응을 조망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이론과 뇌과학을 접목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뇌가 정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과 비슷하지만, 이와는 변별된(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창의적 능력이라는 사실에 도달한다. 인간의 뇌는 끊임 없는 추론과 이를 바탕으로 외부 세계를 재구성하는 '창작 기계'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시각 반응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세포나 신경과 같은 생물학적 단위 등과 연계해 접근해



저자 에릭 캔델이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으로 삼았던 미술작품들.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성의 머리' (왼쪽), 에곤 실레의 '추기경과 수녀'.

간다는 것이다. 즉 저자는 눈으로 받아들인 시각 이미지를 어떻게 뇌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뇌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 유사한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책에 삽입된 많은 뇌 그림이 이를 방증한다.

실지로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공부했다는 것은 뇌와 감정, 무의식 사이의 관계를 '통찰'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즉 창의적 사고 과정에는 무의식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뇌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가 섭렵한 분야는 과학, 심리학, 인문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방대하다. 책 곳곳에 과학적인 지식 외에도 언급한 화가들의 그림에 담긴 의미와 사회적인 맥락 등도 소상하게 기술하고 있다. 예술과 뇌과학의 관계를 프로이트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규명하고자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다.

책에는 곳곳에서 '빈 1900'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프로이트와 클림트 같은 대가들이 소통하면서 예술과 학문의 지평을 넓혀갔던 '빈 1900'은 통찰의 시대였다는 뜻이다. 아마도 저자는 책을 통해 오늘날 말뿐인 '융합'과 '통섭'을 향해 의미 있는 고언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 <알에이치코리아·3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변화의 시대 핵심가치는 전문성과 창의성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에릭 슈미트 외 지음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구글 맵,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80% 점유 등 구글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소설 '통찰의 시대'를 펴낸 에릭 슈미트(85)는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펴내며 '구글이 어떻게 일했는지, 왜 기술혁신이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는지를 면밀하게 파헤친다. 구글에는 기존의 기업문화와는 설명되지 않는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 정돈되고 질서 있는 사무실보다 부대끼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어지러운 환경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혼란이 마덕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질적 수준이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전문성과 창의력'으로 사시(社時)와도 같은 개념이다. 구글이 자유로운 업무 환경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전문성과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기존의 환경에서는 기피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구글이 실행하는 방식, 추구하는 전략, 꿈꾸는 비전을 통해 거대한 변화 시대에 기업과 개인이 살아남고 번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변화를 어떻게 놓고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김영사·1만58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노벨평화상 받은 소녀 말랄라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나는 말랄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외 지음

탈레반의 총에 맞은 소녀, 기적적으로 살아나 2014년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소녀 말랄라의 이야기를 담은 책 '청소년을 위한 나는 말랄라'가 출간됐다. 파키스탄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파키스탄 사회를 점차 장악해 들어오는 탈레반에 맞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운동

을 전개해 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누구보다도 극적인 경험을 하고 가까스로 살아난 말랄라지만 그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 청소년기의 평범한 소녀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학교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파키스탄의 현실을 외부 세계에 알리기 위한 운동을 했었다는 점이다.

1인칭으로 들려주는 다정하면서도 힘 있는 말랄라의 목소리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신념을 지켜 나가는 한 가족의 삶과 테러리즘의 공포에 일상을 잠식당한 파키스탄 아이들의 현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추악한 실체를 선명하게 들려준다. <문학동네·1만2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 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시공 → 옥상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달린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